

“재키찬 퍼포먼스처럼 다양한 액션 기대하세요”

“삶에 힘·용기되는 곡이었으면” 임재범, 16일 7집 제1막 발표

13일 개봉 ‘더 킬러’서 액션 내공 연기 장혁 “사극처럼 밀도있는 연기·빌런 캐릭터 해보고 싶어 배우로서 색깔 만들기 위해 절권도 배웠지요”

“성룡(청룡·재키찬)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를 구성해요. 드라마는 액션에 대한 동기 부여입니다. 드라마를 단축해서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6일 서울 종로구 카페에서 만난 장혁은 실베스터 스탤론이 펀치를 날리는 ‘로키’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10년 넘게 복싱과 절권도를 연마하며 몸을 만들고 액션 호흡을 다듬었다. 오는 13일 개봉하는 ‘더 킬러: 죽여야 되는 아이’에서 그동안 쌓은 내공을 한껏 펼쳐 보인다.

‘더 킬러’는 작정하고 장혁의 액션을 담기 위해 만든 영화다. 은퇴한 전직 킬러 의강(장혁 분)이 어찌다 맡게 된 소녀 윤지(이소영)를 위기에서 구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수많은 악당들을 처치하는 이야기다.

소녀를 구출하는 킬러는 총무로와 할리우드를 막론하고 흔하게 등장하는 캐릭터다.

영화는 원작 소설의 드라마 요소를 대거 생략했다. 결말이 예상되므로 대체로운 액션으로 최종 목표물을 향해가는 과정에 집중하는 전략이 영리할 수 있다. 장혁은 영화의 액션 장면들에 대해 “배우 간 힘이 아닌 목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녀를 구하기 위한 단서를 찾는 와중에 무언가를 처리합니다. 빨리 이상황을 해결하고 다음 단서를 찾아가는 게 목적이죠. 퍼포먼스만 보여주

기 위한 느낌이 되면 목적이 아니라 행위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는 무술을 해본 배우와 안 해본 배우의 다른 점이기도 하다고 장혁은 말했다.

영화의 액션 장면들은 무기와 공간을 폭넓게, 음악과 조명은 현란하게 사용했다. 장혁은 “다양한 퍼포먼스를 ‘난타’ 같은 느낌의 사운드와 합치면 재밌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영화를 ‘고집 액션’이라고 표현했다. 절대적인 존재가 방해물을 하나씩 제거하며 싸움을 평정하는 스타일이다. 반면 ‘저점 액션’은 인물들이 힘을 합쳐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경우다. 리사옴(이소룡·브루스리)이 고집 액션이라면, 청룡은 저점 액션을 즐긴다고 했다.

장혁은 배우들 또는 복싱 스파링 파트너끼리 ‘연대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주성치 사단처럼 연대감 있는 배우들이 각자 일을 하면서 프로젝트가 있을 때 영화를 만들면 재밌을까요. 시합에 나가기 위해 운동하는 친구들과 연대감을 갖고 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영화에는 장혁과 평소 친분이 있는 차태현과 손현주가 카메라로 출연한다. 의강의 과거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주는 인물들이다. 차태현은 시체 처리업자, 손현주는 총기 판매상 역할을 맡았다. 장혁은 “같이 작업한 배우끼리 담백함과 연대감이 있다”고 했다.

장혁이 자신의 액션 연기뿐 아니라 작품의 전반



장혁이 주연을 맡은 영화 ‘더 킬러’ 스틸컷.

적 콘셉트와 캐스팅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기 때문이다. 액션 디자인도 무술감독과 함께했다. 장혁은 드라마 ‘주노’(2010)부터 영화 ‘김작’(2020)까지 액션에 일가견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액션배우로만 머물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액션을 좋아하지만 액션배우로 한정짓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사극처럼 밀도 있는 연기나 빌런 캐릭터도 해보고 싶어요. 절권도를 시작한 것도 너무 좋아해서가 아니라, 배우로서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잘하는 것만 하면 언젠가 바닥이 날 걸요.”



가수 임재범(사진)이 오는 16일 오후 6시 정규 7집 ‘세븐 콤파’(SEVEN.)의 제1막 ‘집을 나서며...’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블루씨드컴퍼니가 7일 밝혔다.

이번 작품에는 타이틀곡 ‘여행자’를 비롯해 ‘홈리스’(Homeless), ‘그리움’까지 총 3개의 음원이 수록된다.

임재범은 공식 SNS에 게재된 영상을 통해 “녹음을 시작하면서 소리가 안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 많이 버거운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낼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삶에 힘과 용기가 되고, 서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곡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제2막, 3막에 수록된 곡들이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정규 7집의 프롤로그곡인 ‘위로’를 발표하기도 했다. ‘위로’ 가이드 영상은 유튜브 11만뷰, 뮤직비디오는 45만뷰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범죄도시 2’ 너무 폭력적” 베트남서 상영 금지



한국에서 관객수 1000만명을 돌파한 ‘범죄도시 2’(사진)가 베트남 내 상영이 금지됐다.

7일 현지 극장가 및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롯데시네마는 범죄도시 2 상영을 추진했으나 베트남 당국은 상영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시네마의 관계사인 영화 배급 및 투자제작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국에 등급 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열 당국은 “영화에 너무나 폭력적인 장면이 많다”면서 심의 반려 조치를 내렸다.

이 영화는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와 금천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이 베트남에서 폭력배인 강해상(손석구 분)과 일당을 소탕한다는 스토리다. 영화에서 베트남 최대도시인 호찌민은 한국인 범죄자들이 관광객 납치와 살인을 서슴지 않는 무법지대로 묘사된다. /연합뉴스

“부담스럽지만 ‘호러퀸’ 타이틀 생겨 좋아요”

공포영화 ‘뒤틀린 집’ 서영희 “이젠 호러에 눈 뜬 것 같아”

배우 서영희(사진)에게 ‘호러퀸’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지 20년 가까이 됐다. 처음 주연을 맡은 영화 ‘스승의 은혜’(2006)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슬러서 호러였다. 공포영화의 여배우 등용문으로 통하던 시절이었다. 이제는 국산 공포물이 가문에 콩나듯 제작되지만, 서영희는 ‘여곡성’(2018) 이후 4년 만에 다시 공포영화로 돌아왔다.

“부담스럽지만 뭔가 타이틀이 생긴 것만으로도 좋아요.” 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뒤틀린 집’ 제작사에서 만난 서영희는 ‘호러퀸’으로 불리는 데 대해 “힘이 되고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추격자’(2008)의 미진처럼 스텝리에서도 피침감을 하고 등장하는 캐릭터를 유독 자주 맡는 바람

에 ‘호러퀸’ 이미지가 더 굳어졌다. ‘뒤틀린 집’은 울여름 개봉 일정을 잡은 유일한 국산 공포물이다. 잔인하거나 놀래주는 공포영화 아니다. 신경쇠약에 걸린 엄마 명혜(서영희 분)가 외딴 집으로 이사한 뒤 서서히 미쳐가는 모습을 그린 심리 호러다. 명혜는 육아우울증에 풍수지리상 귀신이 몰려든다는 집터의 저주까지 겹치며 파국을 맞는다.

환청과 환각·악몽에 시달리는 명혜는 딸 희우(김보민)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정신 상태가 점차 악화하면서 딸을 학대하기 시작한다. 서영희는 “모성을 지키려는 마음과 다르게 벗어나는 상황이 명혜를 아프게 했다”며 “아이와 계속 멀어지다가, 남의 탓으로 돌렸지만 결국 내 탓이었다고 깨닫는다”고 설명했다.

서영희는 촬영을 하면서 아픈 아이를 둔 엄마를 머릿속에 떠올렸다고 한다. “놓아버리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아이가 아프지 않더라도, 미혼인 친구들이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 아닌가 싶어요. 남성도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요.”

서영희는 모녀간 뒤틀린 관계를 연기하기 위해 촬영장에서도 희우 역을 맡은 김보민과 친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대기하고 있을 때 촬영 준비하는 모습이 아이 시선에 남을까 봐요. 아이와 관계에서 미안함이 컸죠.”

현실에서는 두 딸의 엄마다. 그는 “예전에 엄마 역할을 할 때는 아이와 호흡을 잘 모르고 예뻐하며 혼잣말하기 바빴다”며 “이제는 아이에게 다가가는 데 익숙해지고 아이 반응을 기다리는 여유가 생겼다”고 했다.

‘호러퀸’으로 10년 넘게 연기생활을 했지만 막상 공포영화 개봉을 손꼽아 기다리는 편은 아니다. 그는 ‘여곡성’을 촬영하면서 “호러에 눈 뜬 것 같다”고 했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p> <p>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안마의자, 식품화장품, 마사지, 기계 개발</p> <p>☎ 062)223-0177, 010-3642-7320</p>	<p>(주)대신수산유통</p> <p>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p> <p>☎ 062)233-0067, 010-3634-7264</p>	<p>(주)쓰리에이치 광주대인센터</p> <p>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온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p> <p>☎ 062)573-3112, 010-8221-3119</p>	<p>문화결혼상담소</p> <p>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p> <p>☎ 062)529-0315, 010-3606-5632</p>	
<p>꽃게랑 약선반찬 전집</p> <p>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p> <p>☎ 010-2315-2058</p>	<p>금남로 사주 카페</p> <p>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p> <p>☎ 010-7495-1577</p>	<p>성수동골짜배기나주영산포점</p> <p>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골짜배기2개 1000원, 옛날함도그1개 1000원 치즈함도그1개 1500원, 참살도너스2개 1000원 팔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p> <p>☎ 061)337-7987, 010-7732-6955</p>	<p>면쟁이</p> <p>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밀,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p> <p>☎ 010-5459-9664</p>	<p>법무사 황영수 사무소</p> <p>광주시 동구 자산로78번길 13, 검찰청담벼락빌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p> <p>☎ 062)226-9966, 010-3002-0816</p>
<p>동양철학원</p> <p>동구 불로동 11-2(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p> <p>☎ 062)224-7687, 010-2611-7687</p>	<p>필스제화</p> <p>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글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굵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p> <p>☎ 010-4755-9294</p>	<p>인철(仁喆)익스프레스</p>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p> <p>☎ 062)572-2323, 010-9509-4422</p>	<p>무크 광주세정점</p> <p>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멋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p> <p>☎ 062)370-9151</p>	<p>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p> <p>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터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문 준비</p> <p>☎ 062-225-4445, 010-3603-3064</p>
<p>고전방</p>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p>남도철학원</p> <p>북구 전변우로79번길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생,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p> <p>☎ 062)522-9653, 010-8645-2254</p>	<p>송가네 반찬</p> <p>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p> <p>☎ 062)672-9809, 062)672-6376</p>	<p>다흥치마 한정식 전문</p> <p>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동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p> <p>☎ 062)233-9952, 010-4469-0360</p>	<p>한국기원</p> <p>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p> <p>☎ 010-8610-8373</p>
<p>석당화랑</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p> <p>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p>초대화랑</p> <p>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박당화랑</p>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한승 ☎ 062)222-6866</p>		